

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반응

- 11월 8일(현지시간) 개최된 미국 대통령 선거(선거인단 선출) 개표 결과, 공화당의 Donald Trump의 승리가 확실시
- 금융시장에서는 예상과 다른 선거결과로 주식, 신흥국 통화 등 위험자산 가격이 급락
 - S&P 500 선물 : 4.53% 하락(2135.50 → 2038.75)
 - Nikkei 225 : 5.36% 하락(17171.38 → 16251.54)
 - KOSPI : 2.75% 하락(2003.38 → 1948.25)
 - 멕시코 페소화 : 18.3226 → 20.1830
- 반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엔화, 금, 미국국채의 가격은 상승
 - 엔/달러 : 105.16 → 101.78엔
 - 금 가격 : 1275.68 → 1325.00달러
 - 10년물국채(미국) : 1.855% → 1.7569%
- 한편 원화 NDF 환율은 1129.50에서 1152.60으로 상승
-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 이후 금융시장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Brexit 사태와 같이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혼재되어 있음
-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 12월까지 지속될 경우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

Trump의 경제 · 금융 관련 주요 정책

□ America first(미국 우선주의)에 의한 보호무역정책 강화

- 근로 부문에서 미국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이민법 강화
 - 불법이민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에 거대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공약
- 무역 부문 역시 미국을 우선시하는 무역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TPP 철회 및 NAFTA 재협상을 주장
 - * TPP(Trans-Pacific Partnership) : 아시아·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무역장벽 철폐와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
 - * NAFTA(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) : 미국, 캐나다, 멕시코 3국의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는 자유무역협정

□ 국가재정 확대

- 국가 재정부담을 확대하는 ACA(Affordable Care Act)를 즉각 폐지하고 개인이 보험료 이외에 지출해야 하는 실비를 보건저축계좌(HAS)를 통해 지급하며 이에 대한 세금 면제를 주장
-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주요 과세 관련 감세 및 폐지를 주장
 - 법인세의 경우 15%의 단일 법인세 도입(현행 15~35%)
 - 소득세 과표구간을 현재 7단계(10%, 15%, 25%, 28%, 33%, 35%, 39.6%)에서 12%, 25%, 33%의 3단계로 축소
 - 또한 상속세 폐지 및 미국기업의 해외소득 미국 환입 시 저율과세로 변경(현행 35%→10%)을 공약

□ 금융규제 완화

- 금융당국의 과도한 감독 및 권한을 비판하고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개혁법인 ‘Dodd-Frank Act’ 폐지를 공약

* Dodd-Frank Act : 2010년 7월 발효된 광범위한 금융감독개혁안으로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, 금융감독기구 개편,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,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독 강화,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 강화임